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0. 1. 13 (수)

TEL. 054-880-4322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이철우 도지사,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거부 피해 없어야... - 지역 고3 수험생의 하소연... 자가격리중 시험 응시토록 정부에 건의	대변인실	
② 경북도, 새해 첫 투자양해각서 (주)에스앤비인터내셔널과 체결 - 참차기공 및 수출업체 청도에 매출액 2000억을 목표로 공장신설	투자유치실	
③ 경북도-경북도청공무직노조 간 임금교섭 결렬! - 공무직 노조, 임금 저하 없는 호봉제 도입 지속 주장 - 공무직 노조 전년대비 최종 6.12% 인상안 요구, 도 1.63% 제시	자치행정과	
④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 후원금 1억원 전달 - 경산소재 중견기업인 아진산업(서중호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자치행정과	
⑤ 문경시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산란을 저하 및 폐사 증가로 축주 신고	동물방역과	
⑥ 경북소방학교, 현장교육 중 신속한 대처로 주택화재 진압 - 현장교관들이 불길 발견 후 신고에서 현장 활동까지.. 초기 큰 불길 잡아 - 교육생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기본정신 보여줘	경북소방학교 교육훈련과	
⑦ 한국전기공사협회 경상북도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 회원사 모금 성금 1천 3백만원으로 「희망2021 나눔캠페인」 나눔온도 높여 -	에너지산업과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3(수)】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 자	대변인	최영숙			
			팀장	공석	담당자	정종혁	
		연락처	054-880-4322				

이철우 도지사,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거부 피해 없어야...

- 지역 고3 수험생의 하소연... 자가격리중 시험 응시토록 정부에 건의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실기시험 응시가 제한됐다는 지역 고3 수험생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며 피해자가 없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 했다.

영주에 거주하는 고3 수험생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미술실기시험 응시를 앞두고,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돼 대학으로부터 응시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 학생은 현재까지 음성판정을 받고 1월 24일 까지 2주간 자가격리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수험생들의 3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서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며, “대학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실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 정부차원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수험생들에게 시험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학과 적극 협의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불문하고 피해보는 수험생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겠으며, 관계부처에 격리시험실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할 것” 을 지시했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대학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도내 수험생을 전수 조사 할 것” 을 지시하고, “자차이용이 어려운 코로나19 관련 수험생들의 이동교통편을 소방에서 지원해 불이익 받는 수험생이 없도록 하라” 고 강조 했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3(수)】	담당부서	투자유치실			
		작성자	실장	황중하		
			팀장	금원섭	주무관	윤희락
		연락처	054-880-4628			

경북도, 새해 첫 투자양해각서 (주)에스앤비인터내셔널과 체결 - 참치가공 및 수출업체 청도에 매출액 2000억을 목표로 공장신설 -

경상북도와 청도군은 13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참치가공 및 수출업체인 (주)에스앤비인터내셔널과 150억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양해각서 체결에는 오동환 (주)에스앤비인터내셔널 대표,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율 청도군수, 박권현 도의원, 김하수 도의원, 이선희 도의원, 김수태 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에스앤비인터내셔널은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2021년 ~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부지면적 9,132㎡(2,760여평), 건축면적 2,842㎡(860여평)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참치 해체 및 가공을 위한 냉동시설, 가공라인, 포장라인, 입·출고장 등 시설 확충을 통해, 2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로 (주)에스앤비인터내셔널은 첨단위생관리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기업은 이를 통해 매출액 2,000억원을 목표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우리 경상북도에 투자하면 성

공하는 스토리를 구축해 나가고,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북 조성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투자양해각서 체결 추진계획

I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21. 1. 13.(수) 11시 / 청도군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5명 정도
 - (도) : 경제부지사, 투자유치실장, 도의원, 등 5명 정도
 - (군) : 청도군수, 군의장, 부군수, 국장, 과장 등 7명 정도
 - (기업) : 오동환 대표 등 임원 3명 정도
- 투자규모 : 150억원
 - (사업기간) 2021 ~ 2022(2년간)
 - (신규고용) 20명 정도
 - (투자지역)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555-12번지 일원
 - ※ 부지면적 9,132㎡(약 2,762평), 건축면적 2,842㎡(약 860평)
 - (투자내용) C10213 냉동수산물 제조, 포장, 보관공장
- 지원사항
 - (행정) 공장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 지원
 - (재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최종 산업부 심의결정)

II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5	05' >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1:05~11:12	07' > 회사소개 및 투자계획 설명	(주)에스앤비인터내셔널
11:12~11:20	08' > 인사말씀	기업대표, 경제부지사, 청도군수, 군의장
11:20~11:25	05' > 투자양해각서 체결	기업대표, 경제부지사, 청도군수
11:25~11:30	05' > 기념촬영	
11:30	> 폐회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3(수)】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과장	정진환			
			사무관	서병문	주무관	김희수	
연락처	054-880-2783						

경북도-경북도청공무직노조 간 임금교섭 결렬!

- 공무직 노조, 임금 저하 없는 호봉제 도입 지속 주장 -
- 공무직 노조 전년대비 최종 6.12% 인상안 요구, 도 1.63% 제시 -

경북도는 지난해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자체교섭 10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노조에서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는 초임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북도의 공무직 초임*은 17개 광역 시·도 중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 경북도 2019년 공무직 초임연봉 : 가군(행정보조, 단순노무) 30,476천원, 나군(도로보수) 32,480천원, 다군(전기, 기계 등) 33,887천원, 라군(농기계관리 등) 36,500천원

※ 복지포인트(연90만원+a),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장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미포함

경북도에서는 자체 임금교섭시에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가미한
 △ 기본급의 1.5% 인상 △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월 13만원 → 14만원)
 △ 現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7천원×근속년수)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경북도는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노조측 요구사안인 장기근

속자 배려를 수용하여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현재 정액제(연간 150만원)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80%(직군별 152만원~187만원) 정률제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10년 이하 19천원, 11년~20년 24천원, 21년 이상 29천원)안을 최종 제시하였다.

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7천원→30천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을 제시안이다.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하는 만큼 2019년 임금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되었고,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북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를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대구광역시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병행)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북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 경북도도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공무원 직무급제는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구조혁신 20대 과제 중 하나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한 임금 연공성 완화 및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으로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3종 세트(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휴가비 80~10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를 제시하나, 경북도는 복지포인트 90만원+ α , 명절휴가비 15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30만원, 장기재직휴가, 육아휴직 3년, 휴양시설 이용,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공무원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유래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3(수)】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작성자	과장	정진환			
			팀장	방주문	담당자	우대범	
		연락처	054-880-2813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 후원금 1억원 전달

- 경산소재 중견기업인 아진산업(서중호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

경상북도는 13일 도청 접견실에서 지역의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인 아진산업(대표이사 서중호)이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일환으로 추진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에 후원금 1억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내 소외 이웃 지원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저출생 극복사업,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모금운동으로 현재까지 7억 6천만원을 모금했으며, 20년 11월 17일에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을 위해 한국해비타트로 1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은 20년 8월 14일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 경북청년봉사단이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해온 사업으로 경북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경북도 독립유공자 현황(16,410명중 2,327명, 전국의 14.2%, 1위)

지난해 8월 안동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후손 임시재 어르신(85)의 노후 주택 수리(외벽보강, 난방공사,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 등)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채의 주거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희생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받들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나눔운동에 작은 정성을 보태는데 대하여

송구해 하면서도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는 일” 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기업 등 모두가 힘들 때에 이렇게 성금을 보태준데 대해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예우와 보훈의식을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 행사후 송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 사업 후원금 전달식

□ 개 요

- 일 시 : 2021. 1. 13(수) 15:00
- 장 소 : 도지사 접견실
- 참 석 자 : 이철우 도지사, 전우현 공동모금회장,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 등
- 후 원 금 : 1억원
-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후원금 전달 등

<아진산업>

- 설 립 일 : 1978.05.31
- 대표이사 : 서중호(1959년생, 63세)
- 주 소 : 경산시 진량읍 531번지
- 매 출 액 : 4,400억원
- 사업분야 : 자동차 차체 및 전장 등



(사)한국해비타트

- 설 립 일 : 1994.12.17. ※ 대 표 자 : 윤희주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5-7 송죽빌딩 2층~5층
- 주요사업 : 주거빈곤 퇴치를 위한 주거개선 및 주거 제공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3(수)】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국 동물방역과				
		작성 자	과 장	김 규 섭			
			팀 장	이영미	주무관	박인화	
		연 락 처	054-880-3446				

문경시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 산란을 저하 및 폐사 증가로 축주 신고 -

경상북도는 12일 문경시 농암면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은 산란계 3만 8천수 정도를 사육하는 농가로 산란을 저하와 폐사가 증가하여 신고됐다.

이에 해당 농가의 폐사한 닭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다. 검사는 1~2일 소요될 예정이다

해당농장은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람, 차량 등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있다.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 반경 500m이내 3개 농장 19만수를 포함하여 22만 8천수를 살처분 조치한다.

또한, 역학관련 시설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반경 10km내의 가금농장 7개 농장 42만8천수에 대해서는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30일간 이동을 제한한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13(수)】	담당부서	경북소방학교 교육훈련과				
		작성 자	과 장	김 석 곤			
			소방경	홍성민	주무관	임창래	
		연 락 처	054-840-7194				

경북소방학교, 현장교육 중 신속한 대처로 주택화재 진압

- 현장교관들이 불길 발견 후 신고에서 현장 활동까지... 초기 큰 불길 잡아 -
- 교육생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기본정신 보여줘 -

경북소방학교(학교장 김용태)는 지난 9일 현장교육을 진행하던 중 교육훈련과 소속 현장교관들이 경북소방학교 인근 임동면 마을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를 발견하고 신고 후 화재진압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소방학교 현장교관들(소방위 권영팔 외 5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말 외박이 제한된 제94기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들의 교육훈련 중 소방학교 훈련탑에서 화재를 최초로 발견했다.

화재발생현장이 관할 119안전센터와 거리가 멀어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용 중형펌프차량을 동원해 6분 만에 현장 도착 후 화재 진압활동에 임하였고, 신속한 초동대처로 큰 불길을 잡고 피해를 최소화했다.

김용태 경북소방학교장은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의 기본 정신을 교육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전문소방공무원 양성을 통해 현장에 강한 경북소방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3(수)】	담당부서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				
		작성 자	과 장	김 종 태			
			팀 장	두문택	주무관	박지영	
		연 락 처	054-880-7646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 이웃돕기 성금 전달

- 회원사 모금 성금 1천 3백만원으로 「희망2021 나눔캠페인」 나눔은도 높여 -

경상북도는 13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회장 조선관)가 코로나 19와 기록적인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21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여 성금 1천 3백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이날 오후 도청 접견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전우현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조선관 경북도회장, 장현후 안전기술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는 회원사들의 모금활동으로 마련된 성금 1천 3백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희망2021 나눔캠페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이웃들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북도회는 매년 여름 태풍과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전기설비 복구 봉사활동에 나서고, 연말 ‘전기공사기업인 사회공헌 실천의 날’을 지정하여 이웃에게 연탄나눔, 전기설비 점검 및 LED등기구 교체, 방한 물품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조선관 경북도회장은 “이번 성금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사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이웃 간 나눔과 배려를 통해 극복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따뜻한 나눔을 보내주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감사하다.” 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온정이 하나둘씩 모여 국가적 재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사진 행사후 송부>